

즐거찾기 하셨나요? joins.incruit.com

중앙일보와 인크루트가 함께 만든 취업사이트(joins.incruit.com)에 들어가 보십시오. 취업 및 창업에 관한 풍부한 뉴스와 다양한 채용 정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무료로 컨설팅해 드리는 코너와 각종 인증 서비스 코너도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인크루트는 늘 구직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취업 선배와의 대화 헬스케어 컨설팅업체 (주)닥터은 이병일 대표

“희망·생각 담은 드림노트 만들어라, 그대로 일단 저질러라”

“일과 관련한 모든 생각과 포트폴리오를 정리한 자기만의 드림노트(Dream Note)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있는 내용을 이루기 위해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겁니다. 취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겠지만, 행동하면 잡념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중앙일보와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함께하는 ‘취업 선배와의 대화’가 15일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 학생회관(C관) 301호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는 헬스케어 전문 마케팅컨설팅 회사인 (주)닥터은의 이병일 대표. 이 대표는 SK주식회사 OK캐쉬백 마케팅팀, 동양그룹 공연사업부, SK커뮤니케이션즈 월드컵 TF 팀장을 거친 마케팅 전문가다. 취업 지침서인 ‘잘 나가는 회사는 왜 나를 선택했나(주)케이팝’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

강단에 선 그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선택한다는 생각으로 입사 희망 기업을 골라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구직난으로 적성이나 흥미와 무관한 기업으로 입사하는 이들이 늘면서 ‘즐겁지 않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사에 이르는 젊은 직장인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기업에서 일할 때 1만2000여 명의 지원자 중 30여 명을 뽑아냈더니, 몇 년 만에 3명을 남기고 모두 퇴사했다”며 “지금은 취직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해 보이겠지만, 결국엔 하고 싶은 일을 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스스로 재미있어 하는 일을 해야 일이 잘 풀리는 법”이라며 “MBTI적성검사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 적성 흥미도 테스트 등을 활용해 적성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이어 “하고 싶은 일을 정했다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데 주력하라”고 조언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한 홍보대행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 대표는 스스로를 알리기 위해 자기소개서 대신 자신의 이름을 딴 신문(병일일보)을 만들어 여기에 자기소개서를 담았다. 그런 다음 이를 가지고 첫 직장이었던 회사까지 찾아가 자신을 알렸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남들보다 앞선 덕에 대학동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취업에 성공했다.

그는 “취직하려면 무엇보다 마케팅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자를 하나의 상품이라 생각한다면 소비자인 기업은 가장 눈에 띄고 안정성 있는 상품을 고르게 된다는 생각이다. 그는 “선택받는 상품의 공통점은 인사담당자가 재미있어 하고 공감할 만한 자기만의 콘텐츠가 담겨 있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지원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업 간 연관성을 찾아 이를 잘 포장해 낸다면 서류 통과가 어렵지 않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사원에 이어 마케팅컨설팅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로 커리어를 쌓아 가고 있는 그에게 “마케팅 전문



(주)닥터은 이병일 대표가 서울 신수동 서강대에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강의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취업 선배와의 대화에 오세요

- 29일: BAT코리아 인사부 정지윤 이사
- 10월 6일: SK건설 플랜트기계장치팀 황재용 대리
- 장소는 서울 신수동 서강대 학생회관(C관) 301호. 참고: joins.incruit.com

가로의 성공 비결”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최후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은 없을까’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SK커뮤니케이션즈 월드컵 TF팀장으로 일할 때 과천경마공원 응원(7만 명 참석)이나 온라인 응원단 결성(450만 명)에 성공했던 것도 끊임없이 다른 길을 생각한 덕분”이라며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반드시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해외 창업 엿보기 노인 전용 택시 서비스

어르신들 모시는 건 기본, 대신 장도 봐줘

캐나다 인구의 27%는 베이비 붐 세대다. 이들의 현재 나이는 50~60대다. 고령화 사회를 겨냥한 사업이 캐나다에서 성업 중이다.

캐나다 앨버타 지역에서 노인 전용 실버택시 사업을 하는 드라이빙미스데이지(www.drivingmissdaisy.net). 이 회사는 거동이 불편해 일반 택시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노인이나 장애인을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고 원하는 방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 전용 실버택시로 지역 택시 업계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는데,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고객이 겪는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해 줬기 때문이다.

실버택시는 고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기본 서비스 외에도 병원에서 수술을 대신해 주고,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가족과 의료진 사이에서 연락을 취해 준다.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하면 환자 대신 보호자에게 전달해 주기도 한다. 식료품점에서 대신 장을 봐주기도 하는데, 구입한 제품을 집까지 날라주고 정리하는 것을 도와준다. 고객이 공항에 갈 때는 에스코트를 해주고 출입국 수속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몸이 불편한 고객의 경우 승무원에게 인도해 주기도 한다. 휴가를 떠날 때 동행을 해주는 등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완견을 동반한 고객도 이 택시 회사에서는 환대를 받는다.

2002년 노인 전용 실버택시 사업을 시작한 드라이빙미스데이지의 설립자 베버 할리스키는 병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병원을 찾는 노인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실버택시 사업을 생각해냈다. 자신이 사는 앨버타 지역의 노인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겠다 싶어 택시 한 대로 다른 회사에서 제공한 적이 없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후 고객의 서비스 요청이 쏟아지자 주위의 도움을 받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앨버타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에서 34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택시는 50대가량이다.

드라이빙미스데이지의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한 가맹비는 1만5000달러다. 전체 시스템을 갖춰 분사에서 오픈을 해주기 때문에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2~3주 후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초기 투자비가 낮고 현금 장사라는 장점이 있다. 분사에서 지역별로 배타적인 상권을 보장해 준다. 자격을 갖춘 창업자에게는 창업비 대출도 해준다.

노인 전용 실버택시의 경우 일반 택시보다 고객 수가 적어 택시 기사들의 노동 강도는 약하다. 하지만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다. 실버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은 생활 수준이 높고 고학력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자질과 서비스 태도를 갖춘 전문 택시 기사를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가 사업 성공의 열쇠다.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제공
www.changupok.com



노인 전용 실버 택시는 병원에서 수술도 대신해 주고 처방전을 받아 오기도 한다.

창업 소식



짬뽕가리생주(www.zipsseng.net)가 추석을 맞아 10월 11일까지 외국인인과 함께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프리미엄생주 ‘그린비’를 무료로 증정하는 행사를 전국 31개 매장에서 한다. 그린비는 백제 왕실에서 즐겨 마신 한산소곡주를 신세대 감각에 맞춰 13도 저도주로 만든 우리 술이다. 한국 전통의 잔치집을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재탄생시킨 퓨전 전통주점이다. 02-326-3187.

테마가 있는 수작 요리전문점 **야마야마**(www.yamayama.co.kr)가 가맹점을 모집한다. 독립식 공간 주점과 수작 요리 전문점이라는 두 개의 테마를 조화시킨 야마야마는 아가지기한 카페형 인테리어로 여성 고객을 겨냥한 업체다. 여성 고객의 비율이 평균 60% 이상. 공주풍 인테리어 주점으로, 신선한 재료로 조리장이 만드는 수작 요리가 특징. 다양한 이벤트도 벌인다. 1577-1688.

핫샌드위치전문점 **퀴즈노스서브**(www.quiznos.co.kr)가 가맹점을 모집한다. 샌드위치가 차가운 음식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따뜻한 샌드위치를 선보인다. 패스트푸드 전문점의 장점인 빠른 서비스와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샐러드 메뉴는 물론 세트 메뉴를 갖췄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샐러드와 피자를 개발했으며, 유기농 커피를 사용한다. 02-425-3131.

레스토랑형 치킨호프 전문점 **치킨매니아**(www.cknia.com)가 가맹점을 모집한다. 패밀리레스토랑을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로 다른 치킨전문점과 차별화했다. 웰빙 트렌드에 맞춘 오븐구이치킨을 비롯해 와인올리브치킨, 치즈새우바비큐, 해물철판우동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여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전략이다. 창업비용은 33㎡ 기준 3950만원(점포비 제외). 1688-9255.



의자전문 브랜드 **시디즈**(www.sidiz.com)가 각 지역 총판을 담당할 시디지움 점주를 모집한다. 시디즈는 퍼시스가 2007년 론칭한 브랜드로, 20여 년간 의자를 만들어 온 노하우를 접목했다. 올해 출시한 T55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DEA에서 인간공학 디자인 대상을 받았다. 보증금 1000만원, 66㎡(20평) 이상 매장, 운영 인원(3명)이 개설 조건이다. 02-3434-3838.

멀티플렉스 치킨호프 전문점 **리치리치**(www.wirichrich.com)가 치킨 맛의 본질인 육즙 보호와 개선에 효과적인 함초속성법을 특허출원했다. 무기질 성분이 풍부하고 천연 소금을 함유한 함초로 치킨 맛을 업그레이드하고 건강을 고려했다. 치킨 속성법 특허출원으로 요리 수준의 고급 치킨을 선보이는 리치리치는 치킨호프&홍배달 복합 가맹점을 모집한다. 02-2665-2300.

미당추어탕(www.midang.co.kr)이 가맹점을 모집한다. 전북 정읍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미꾸라지를 사용하고 천연양념으로 맛을 낸다. 중앙공급 물류시스템과 첨단 위생설비를 갖추고 가맹점에 완제품을 공급한다. 이 업체는 최근 메뉴를 리뉴얼했는데, 추어만두·추어전·전복추어매운탕·나주곰탕·장흥매생이탕진부령향탕탕·메기찜 등을 추가했다. 1544-6850.

영등포구가 중앙대와 함께 **소규모 점포운영 전문가 과정**을 연다. 10월 6일~11월 27일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진행한다. 인원은 50명. 소규모 점포 운영에 관심이 있는 구민이면 참가할 수 있다.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 신청서를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e-메일(papian@ydp.go.kr)이나 전화(영등포구 교육지원과 02-2670-4149)로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세계적인 영화 보급사 워너브러더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한 캐릭터 멀티숍 **트위티**(www.tweetyfinejewelry.com)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트위티는 주얼리·가방·의류·시계·벨트·신발 등 다양한 제품에 대표 캐릭터를 넣어 판매하는 멀티숍이다. 본사에서 젊은 여성 층이 자주 찾는 전국 50개 상권을 분석해 출점 지역을 확정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02-786-8406.



영어원서 전문도서관 **닥터영어클래스**(www.drjungeclass.com)가 가맹원을 모집한다. 의학박사 정형화 사장이 개발한 영어 학습법으로, 독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도록 한다. 원서 영어 교재를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주도적인 영어 독서방법을 유도해 학습 효과를 내도록 한다. 영어 전문가가 아니어도 창업할 수 있다. 02-566-6553-4.

놀부NBG가 한식과 어울리는 막걸리를 선보이려고 **글로벌식품외식사업단**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글로벌식품외식사업단은 농민과 유통 외식기업, 교수진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농식품 클러스터형 기업이다. 친환경 쌀로 만든 참살이 탁주가 주력 제품이다. 참살이 탁주에 놀부 브랜드를 단 ‘참살이 놀부주’를 개발해 판매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주최, 소상공인진흥원 주관,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시행으로 10월 7~16일 당산역 인근 ‘스킨엔젤스 피부미용학원’에서 **피부미용전문가 성공창업반 교육**을 실시한다. 피부관리 전문가 양성과정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신용도에 따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전화(02-959-5555)나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www.sbdc.or.kr)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40명, 참가비 5만원.

보쌈전문점 **한입보쌈**이 가맹점을 모집한다. 한입보쌈은 가마 찜에서 기름기를 짰 뽕보쌈을 먹기 좋은 한 입 크기로 썰어 진공포장해 가맹점에 공급한다. 친환경 우렁이와 함께 무침으로 먹는 우렁무침보쌈과 한입바베큐보쌈, 흑마늘삼겹살 등의 메뉴를 갖췄다. 저렴한 비용의 맞춤창업 및 업종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 때문에 1000만~1200만원이면 창업이 가능하다. 1588-5633.

지유명차(www.gutea.co.kr)가 11월부터 자유교육문화센터에서 ‘포차사’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포차사는 차를 우려주는 사람으로, 보이차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손님에 응대하는 업무를 한다. 커피의 바리스타에 해당한다. 3개월 일반코스(주 2회, 각 2시간)와 1개월 집중코스(주 5회, 각 2시간)가 있다. 접수는 10월 5~20일, 수강료는 50만원(재료비 별도). 02-762-5634.